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의 도약대를 마련한 뜻깊은 계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돐,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공화국력사에서 특기할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낼 수 있는 열의를 안고 온 나라 인민이 과감한 투쟁을 벌이고있는 속에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올해의 주요정책 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한해의 중요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서는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고 국가의 전면적부흥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2023년 상반기 기간 및 국가행정기관들의 사업정형과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이 총화되고 편향들을 바로잡아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확실성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회의에서는 공화국의 건설력사에서 가장 많이 세워진 많은 공사를 건설하고 있는 공시일정을 드림없이 밀고 나갈데 대한 문제, 새로운 육아정책을 완벽하게 집행할데 대한 문제, 국외관광,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전진할데 대한 문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재점검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범부담계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 장악보조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발전을 핵심전략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주되는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우주산업의 확대발전을 국가적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할데 대한 문제, 대외활동을 철저히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벌어나갈데 대한 문제 등을 사회주의건설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결정되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미를 가지는 세번째 해에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롭고 상층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투쟁방략들이다.

하기에 지금 전원회의소식에 접한 공화국인민들은 승리의 신심과 굳센 의지를 갖기 하고 온갖 도전과 장애를 진부시며 올해를 기어이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맹세와 애국의 열의로 가슴끓이고있다.

《우리의 전원회의정신을 바둑고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견인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 주도성, 창조성, 활동성을 적극 발휘하겠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정신만 있으면 어떤 방대한 목표도 실현할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에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굳어진 우리의 배심이며 우리는 그 투철한 각오와 의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매진할것이다.》

《우리 작업반이 많은 몫을 다해야 우리 직장이 합체적 전진할수 있고 우리 련합기업소가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킬수 있다. 우리는 작업반에 맡겨진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이 바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겠다.》

《당에서는 올해 제시된 일과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조처들을 각방으로 취해줄것이다. 당의 이 믿음과 사랑을 뼈에 새기고 우리의 사람과 인민을 단결시켜나가기에 기어이 필요한 가들을 펼쳐놓겠다.》...

이더를 가나 들을수 있는 이 힘찬 결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데로만 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진다것을 실현할수 있으며 올해 제시된 일과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또한 건설부문에서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준공함에 이어 추가된 2000세대 살림집건설을 끝내고 대평지구 1400세대 살림집건설을 계속하였으며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 강동온실농장건설, 검덕지구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농촌진흥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살림집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 사람들에게 새집들이기쁨을 안겨주고 있으며 인민경제발전과 전략부력의 고도화와 현대화사업에서 커다란 진보가 이룩되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공화국인민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믿고 과하고 승리는 것을 철석의 신념으로 간직하였고 총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변영의 활로를 열어 나갈 의지에 넘쳐있다.

뜻깊은 올해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행로에서 또 한번 도약하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일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투쟁방략들이 제시된 이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를 통하여 인민의 이 신념과 의지는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었다.

하기에 지금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더 큰 신심과 락판에 넘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철세위원의 현명한 령도때라 공화국인민들은 뜻깊은 2023년을 조국강사에 또 하나의 불수령으로 되는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일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가해무력원성의 력사적대업이 이룩되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국위는 사상최대로 떨쳐지고 이 땅우에는 위대한 자손과 변영의 새시대, 강국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이상과 탁월한 령도, 위민헌신에 의하여 창조와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고 인민을 위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서 인민의 웃음소리는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인민경제의 자립적도태는 더욱 강화되고 어디서나 중산의 동물이 높이 울리고있으며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올해 상반기기간에만도 극난한 환경속에서 팽목함만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나라의 농업생산력을 중대시각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것을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영농물자보장과 농촌의 물질기술적도태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올해 제시된 일과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또한 건설부문에서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준공함에 이어 추가된 2000세대 살림집건설을 끝내고 대평지구 1400세대 살림집건설을 계속하였으며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 강동온실농장건설, 검덕지구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농촌진흥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살림집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 사람들에게 새집들이기쁨을 안겨주고 있으며 인민경제발전과 전략부력의 고도화와 현대화사업에서 커다란 진보가 이룩되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공화국인민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믿고 과하고 승리는 것을 철석의 신념으로 간직하였고 총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변영의 활로를 열어 나갈 의지에 넘쳐있다.

뜻깊은 올해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행로에서 또 한번 도약하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일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투쟁방략들이 제시된 이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를 통하여 인민의 이 신념과 의지는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었다.

하기에 지금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더 큰 신심과 락판에 넘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철세위원의 현명한 령도때라 공화국인민들은 뜻깊은 2023년을 조국강사에 또 하나의 불수령으로 되는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일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농장원들에게 하신 인사

주재109(2020)년 8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괴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시고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친히 운전대를 잡시고 큰물이 채 찌지 않은 은파군 대청리로 야전차를 달리셨다.

발목까지 잠기는 감랑길도 주저없이 걸으시며 수재민들의 생활안정과 괴해 복구를 위한 온정어린 조치를 거듭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귀로에 오르지않을 때였다.

폭우에 의해 여기저기 물웅덩이들이 나 있는 곳을 헤쳐나가던 야전차는 그만 길 옆의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었다.

심하게 기울어지는 야전차, 거듭 공회전하는 차바퀴, 그럴수록 더욱 치켜내리는 차체... 허나 몇 안되는 일꾼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수 없었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10여명의 농장원들이 어푸러질듯 달려왔다. 그렇게 달려와서는 온통 흙탕물로 얼룩진 야전차를 보고는 너무나도 억이 막혀 울음조차 터치지 못하고 그대로 진창속에 뛰어들었다.

모두가 한참이나 신고해서야 야전차는 빠져나왔다. 바로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차문을 열고 내리시더니 정말 수고를 하였고, 고맙다고 하시며 몸소 인사를 하시는것이였다.

농장원들과 헤어져 돌아가시는 길에 몇번이나 차를 멈춰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절절한 음성으로 오늘 차가 진창에 빠지다니 인민들을 도와 주려 왔다가 오히려 신세를 지고 간다고 겸허히 말씀하시였다.

깊은 밤에 확정해주신 적지

몇해전 8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본보기온천문화휴양지를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그 적지를 확정해주시려 머나먼 밤길을 달려서 양덕군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괴로도 무실 사치없이 일꾼들을 부르시어 군안의 친척지구에 꾸려져있는 료양소들의 운영실태와 온천리용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곳곳에는 주변경치가 뛰어나고 사람들의 건강과 병치료에 효과가 대단히 좋은 온천지역들이 적지 않지만 휴양 및 료양시설담배 위생문화적으로 온천하게 꾸러진 종합적인 봉사기지가 없다고, 며칠동안 여러모로 따져본 결과 그중 유리한 지역으로 평안도 양덕군의 온천지역을 현지고찰하고 몇몇곳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온천 시간에 걸쳐 양덕군 온천리일대의 온천물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천의 율출량과 물온도를 비롯한 중요특성에 대하여 직접 료해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그곳을 온천문화휴양지의 적지로 확정하시였다. 온천문화휴양지의 적지확정!

인민의 어버이께서 직접 밟아보시며 확정해주신 두메산골의 이 적지가 문명의 별천지로 활화 그날이 벌써 보이는 가실어 일꾼들의 얼굴마다엔 끝없는 환희와 격정이 함뿍 어리였다.

이날 일꾼들의 걱정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예견치 않았던 소나무가 역수로 솟아져나오는 속에서도 온천물이 쉬임없이 뿜어져나오는 율출량을 보시면서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환하게 웃으실 때,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속이었지만 온천 시간에 걸쳐 종합리관을 건설할 위지도 몸소 잡아주시고 야외온천도 할수 있게 실내온탕뿐 아니라 야외온탕도 꾸러내 개별온탕, 대중온탕, 치료온탕 등 각종 온천휴양시설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 주실 때 절정에 달려갔다.

본사기자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진다

—인민의 보금자리로 일떠선 새 거리들을 보며—

얼마전 우리 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그 어디나 속속들이 어려웠던 화성지구의 아름답고 환할한 새 거리에 보금자리를 펴는 골같은 행복을 받아안았다.

살림질이용허가증을 손에 쥐고 승강기문을 나서 15층의 우리 집을 열고 들어서니 덩실하고 아늑한 집안의 전경이 펼쳐졌다. 이방저방을 돌아보고 부엌의 수도꼭지 등을 쏴어보며 당의 사랑에 목이 매어 눈물이 젖어 떨어졌다. 나라를 위해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이런 훌륭한 새집을 우리 가정에 무상으로 안겨주다니, 정말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이번에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1만세대가 새집에 입주하였다.

나라에서 준 새집에서 고풍한 나날을 보내며 즐겁게 출근길에 오르고 또 밝은 모습으로 퇴근하여 아파트승강기에 오르는 사람들속에는 내가 아는 화초사업소 노동자도 있고 국장 관리인이 있으며 어느 한 사업소에서 회계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실로 각이한 직종과 연령의 해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행복을 받아안은것이다.

인생에서 제일 큰 기쁨의 하나가 보금자리를 마련한것이라는데 이 기쁨을 무엇이라고 다 표현할수가 없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하도 따뜻

하고 극진하니 1년전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이던 화성지구에서 1만세대가 사는 행복의 큰 거리가 솟아났다.

정말이지 우리 세상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날마다 북을 두러이 기쁨과 화기, 랑만과 회화에 넘쳐 고무하게 사는 행복의 락원이다.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지난해에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래거리 일떠선데 이어 올해에 화성거리와 대평지구에서 사회주의 변화가들이 련이어 일떠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새 거리의 주인, 새 보금자리의 주인이 되는 회한한 풍경이 펼쳐졌다.

특히 송화거리와 화성거리에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만 해도 무려 2만여세대에 달한다.

2만여세대의 살림집, 이것을 어찌 수자라도 그 크기를 다 헤아릴수 있으랴.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인민을 위해 마련해준 또 하나의 크나큰 선물이어서, 달과 해가 바뀔수록 더욱 커만 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이면서 누구나 뜨거운 격정속, 눈물속에 바

라보는 소중한 2만여세대 살림집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국가가 평민들에게 새집을 무상으로 안겨주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집없이 한지에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나라에서 2만여세대의 가정들에 새집을 무상으로 안겨준 것은 인민을 위해서이든 무엇도 아니라고 하는 우리 조국 이 아니라고는 어디 가서 볼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수없는 이 행성의 기적같은 현실이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행복의 큰 재부이다. 어머니 우리당이 인민을 위해 마련해준 산 같이 큰 재부이다.

이런 생각이 가슴을 울려 주는데 문득 어느 출판물에서 본 글이 떠올랐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극소수 특권층 100명이 무려 2만여세대에 달하는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몇몇 부자들이 평균 한 명당 200세대의 주택을 독차지하고있는셈이다.

특권층들은 이렇게 많은 집들을 부회로 사들여 부동산투기행위에 리용하면서 저들의 돈주머니를 불구고있

었다.

한쪽에서는 극소수의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 집들을 사들여 《주력왕》 등으로 불리며 투기행위를 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방황하고있었다.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이다.

남조선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날마다 폭등하여 일반평민들은 집을 살 엄두를 못낸다고 한다. 한성로쪽 배밭지 일해서 번 돈을 환골도 쓰지 않고 피박둑모아 사 다 투자해야 집 한채를 겨우 장만할수 있다고 하니 제 집마련이 하늘의 별따기 인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전체 주민세대의 45%가 집이 없이 남의 집 세방살이를 하거나 움막, 비닐막막집, 집합판자집, 천막과 같이 집 아닌 집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또한 수많은 청년들이 집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고 인생마저 포기하고있다.

돈이 사람우에 있는 남조선에서는 집을 많이 지어도 평민들은 돈이 없어서 집이 들어갈수가 없다. 그래서 빈집이 그렇게 많다. 이것이 바로 황금민들의 씩어박진 남조선사회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언론들도 《이 땅에 아바트는 많지만 하늘에서 서민들이 많지 않다.》(수많은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패일을 두려워하고있다.)고 개탄하고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에서 집을 2만세대, 설사 20만세대, 200만세대를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한쪽에서는 100명이 2만여세대이상의 살림집을 독차지하고 돈벌이를 하며 평범한 거리고있을 때 인구의 큰 절반이 집이 없어 한술만 취하고 눈물을 흘리는 남조선이야말로 비뚤어져서 단단히 비뚤어진 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색은 세상이 아닐수 없다.

재부는 인민이 창조하는데 몇몇 특권층과 재벌들이 그 재부를 제 주머니에 다 걷어 넣고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대중은 늘 생계위협을 당하고 알انه에 대한 불안속에서 살아야 하는 숨막히는 남조선사회.

인간생지옥인 그곳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해서나 살아보려고 모자를 썼지만 도저히 살수

가 없었다고 한다. 하여 끝내는 《주운 겨울에 셋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다. 3일간을 길가에서 보내고 레일이 오는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하직하였다는것이였다.

이런 비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남조선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룰수 없는 것으로 되었고.

꿈도 이루어져야 진짜 좋은 꿈이다. 그렇지 않은 꿈으로만 그친다면 고통한 꿈이고 도저히 손으로 잡을수 없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남조선같이 인간세상의 덕과 정이 마르고 오직 돈만 아는 세상에서는 언제 가도 인민들의 그런 꿈이 이루어질수 없다. 그래서 가진 자들의 세상인 남조선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사회의 어둠을 밝히려 고 각개가 지퍼는 저주와 향겨의 불결이 매일같이 타오르는것이다.

꿈도 이루어져야 진짜 뛰어난 사람의 손길인 꽃피워주는 아름다운 꿈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꿈도 시끄럽고 인생도 메말라버리게 된다.

한두사람의 꿈만 아닌 인

민의 꿈.

우리 공화국에는 그 꿈을 꽃피워주는 크나큰 사랑의 손길이 있다.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국가정책순위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탁월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공화국에서는 행성의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회한한 새집들이 불수가 매일같이 펼쳐지고있다.

한두명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웃음지고 사랑의 새 보금자리에 출저어 들어서는 행복의 풍경, 너무나 비 새집들이하는 곳마다 펼쳐지는 출판, 여기저도 출저어서도 춤, 모두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제일처럼 기뻐하고 더 밝은 미소를 그려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노래하는 모습...

5만세대 살림집건설이 한창인 수도에서만이 아니다. 지방마다, 농촌마다 누구나 보면 감랑하고 부러워하는 새집들이 날마다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수많은 주민들이 새집을 받아안았다는 소식이 련속 전해져 지금 온나라는 말그대로 매일같이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다.

화성구역 화성1동 촬영식

